

어린이 책꽂이

▲내 이름은 아서 = 세상의 양면을 편견없이 바라보게 된 열살 소년의 성장기. 주인공 아서는 할아버지의 시골집에서 여름을 보낸 후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 삶과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어린이 박물관 고려 = 고려 사람들은 어떤 바랍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국보급 유물과 유적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리즈로, 이번 고려편에서는 고려 사람들의 삶과 이상,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다.

▲달강 달강 = 전래동요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정서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노래하는 이야기책 시리즈. 달강 달강은 아기에 대한 어른들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동요로 책속의 CD를 들으면서 노래와 이야기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세상에, 장수풍뎡이가 되다니 = 곤충학자 김정환과 동화작가가 수심 어린듯한 곤충을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쓴 생태다큐동화. 어느날 갑자기 장수풍뎡이가 된 민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미있고 신기한 곤충의 세계를 들려준다.

▲내사랑, 파란 나무술 = 주인공 소년 마그리트가 사는 마을은 태양에서 황금색 노른자가 푹푹 떨어지고, 달에서는 달콤한 과일들이 흘러나는 초현실적인 공간이다. 많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마음속에 자신만의 파란 나무술을 가꾸어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세상을 향해 띄우는 일년 열두 달 '사랑편지'

사랑은 외로운 투쟁 이해인 지음

에는 '식구'를 생각하며 '꽃 선물'을 제안한다. 아버지에게는 노란 해바라기를, 어머니에게는 장미 한다발을, 언니와 누이들에게는 안개꽃을, 어린 동생과 손자 손녀에게는 패랭이를, 이모·고모·삼촌에게는 라일락꽃을 주고 싶다면서. 그녀의 편지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다.

5월엔는 식구 생각하며 꽃선물을 10월엔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

지인들에 보낸 편지 월별로 묶어 '궁금해요 수녀님' 코너 마련도

적어보낸 사연, 교과서에 실린 '작은 위로'를 읽고 나는 하나도 위로가 안됐는데 왜 제목을 '작은 위로'라고 지었느냐며 항의하던 귀여운 초등학생, '이모님, 꼭 건강하세요'라는 말로 따뜻한 울 전하던 무기수 신장원, 그래서 안되는 줄 알면서도 남들의 위로가 밋도 밋도 없이 고깝게 만 들린다며 기도를 청하던 유방암 환자 등. 독자들이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수녀님 궁금해요'라는 코너로 따로 묶었다. 이 명숙이라는 이름 대신 바다가 좋아, '논어'에 나오는 '인(仁)'이라는 한자가 좋아 '해인(海仁)'

이라 필명을 지은 사연. 13살 연상인 수녀 언니를 보고 성직자의 꿈을 키운 사연, 수도자이면서 시인이라는 유병세가 힘들기도 했으나 이제는 '담백한 평상심'을 갖게 됐다는 솔직한 고백 등을 만날 수 있다. 편지글에서 그녀는 감동깊게 읽은 책들을 자주 소개한다. 하루아침 사계조의 '노내혁명', 김영갑의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지허 스님의 '선방일기', 빌리 밀스의 '보키니', 황대권의 '야생초 편지', 파에르 신부의 '단순한 기쁨', 이청준의 '아름다운 흉터', 돈 미켈 루이스의 '내가 말을 배우기 전 세상은 아름다웠다', 송산삼님의 '오직 모를 뿐', 엘레나 포이테의 '파에리아의 편지' 등 그녀의 추천서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책을 읽다보면 '선물방', '작은 우체국'으로 불리는 해인 수녀의 작은 방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하게도 수도원에 미리 전화와 하고 약속을 하면 누구든지 그녀의 방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음악과 들을 수 있단다. 그녀가 없을 때 그녀의 공간에서 잠시 머물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한편 그녀는 최근 수도원의 일상, 자연, 명상, 만난 사람 등을 소재로 삼은 짧은 생각과 시를 엮은 '꽃밭 단상(분도출판사)도 함께 출간했다. 이해인 수녀 카페 '민들레 영토'(cafe.daum.net/dandelion) (미음산책·1만원) /jemimemegam@kwangju.co.kr

내 인생 한편의 책

최재봉 '간이역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

문화도시를 향한 광주 의 노정에서 즐거움과 일들이 생겨나고 그 일만큼이나 많은 얘기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허공을 떠도는 얘기들은 문화계나 문화시설, 문화활동가를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모두 저 먼 나라의 얘기 같아서 아니라 계획하거나 결정된 사안 내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은 대응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수용태세의 미비함에 몸부림치거나 혹은 문화에 대한 접근이 철골 트러스트처럼 경직될 때 내는 불속 한편의 책을 빼어든다. 그것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추억을 더듬거리 법한 공간과 그 공간에 대한 문화인들의 시선을 버무려 놓은 한겨레신문 최재봉 문화담당 기자가 쓴 '간이역에서 사이버스페이스까지'라는 책이다.

한국문학의 태동 공간에 대한 탐사서인 간이역을 비롯하여 카페, 포장마차, 탄광촌, 엘리베이터, 우체국 등 29개의 공간을 문화작품을 통해 접근해 본 것이다.

은갖 일을 거절하지 못해 다시 그 일에 대한 재촉이 시달리고 바쁜채로 변변한 시간이나 소설 한편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내 삶에 이 책은 삶에서 조우하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욱 말랑말랑하게 연애하듯 읽을 수 있으며 존중하여 사용할 수

현대인 고독 해소하는 문학공간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책을 통해 수평의 골목을 잃어버린 요즘 아이들의 불우함을 이사라의 '수직골목'이라는 시에 "21층에서 12층에서 내려오는 동안 / 거의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나날이요" 라는 두 단락의 문장과 "혼자였습니 /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순간 / 도시에서 오직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 라는 구석본의 '떠돌이별'이라는 시에서 절감하였다.

하여 다시 뒤적여 보니 '수직골목'에서 "한때는 타박타박 수평 골목 출신이었죠 / 길을 넓혔다가 좁았다가 넓었다가 줄었다가" 라는 구절에서 그레, 확장과 수축이 내 몸에서 가능한 공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골목길 아닌가 싶어지며 잃어버린 수평의 골목을 위한 그리움에 목이 메어왔다.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잉크본새를 이수위의 '우울한 상충'이라는 시와 안도현의 '바닷가 우체국'이라는 시를 통해 끌어오며 펜과 우체국이 갖는 애절한 접속의 발효지점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매력을 던져 주었다.

29개의 공간과 작가와 작품을 대비하는 이 책이 갖는 매력은 단지 공간감각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고단함으로 먼지만 풀풀 쌓였던 책장을 뒤적이며 하고 다시 소설과 시가 담긴 책을 들게 하는 솔직한 권유에 있다. 책은 문학적인 감성이 오늘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 사는 나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하고 실현 가능케 할 것인지 제시하고 있었다.

사이버 스페이스와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만나는 고독을 수평의 골목과 간이역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문득 29개의 공간만큼은 혼자가더라도 거기 수많은 작가들의 발걸음과 속삭임을 함께 할 수 있어 결국 짝꿍인 밤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전고필 <북구문화의집 상임위원>

낮설고 멋적었던 여고시절 추억들

언젠가 기억에서... 에쿠니 가오리

베스트셀러 '냉정과 열정 사이, Rosso'(2000)를 쓴 일본 여류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새 소설집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가 번역·출간됐다. 여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년비서 식으로 엮은 6편의 소설은 제목에서 눈치챌 수 있듯, 살면서 잊고 있었던 성장기의 기억들을 다루고 있다. 당시에는 삶의 전부였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쓴 웃음만 나오는 유년의 기억들. 저자는 낮설고 멋적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손가락'의 기쿠코, 현실을 버리지 못해 정신에 고풍이 간 '초록 고양이'의 에미, 우정과 연애의 경계에서 수줍은 사랑을 이어가는 '천국의 맛'의 유즈, 비만에 대한 괴해의식으로 가득 찬 '사랑 일기'의 카나 등 설명하기 힘든 감정과 경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소설 속 주인공들은 어쩌면 우리를 예전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CEO 13명이 들려주는 '책 에찬론'

CEO, 책에서... 진희정 지음

한 사람을 알기 위한 가장 손쉽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읽는 책을 알아보는 것이다. 사고를 형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미치는 독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방목작가 출신 진희정씨가 쓴 'CEO, 책에서 길을 찾다'는 평소 책을 가까이 하는 CEO 13명의 '독서 이야기'다. 직장인이려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CEO. 이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을까. 폭스바겐코리아 박동훈 사장, KBS 김승호 사장, 예스24 정승우 대표, 흥플러스 이승환 사장, 배상변수가 배영도 사장, 두산주유BG 한기선 사장, 존오해어 강윤선 사장, 김영모교자점 김영모 사장, 교보문고 권경현 사장 등 13명이 들려주는 '책 에찬론'에 귀 기울여 보자.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성공비결을 독서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서 습관 5개 항목은 보너스다. <비즈니스북스·1만2천원>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우부동산센터 (471) 0823, 011-607-2213. 상업지 5층상가 오피스텔, 1200세대 APT 1층상가 16평, 화순읍 농가주택 187평, 관리지역 대지 2100평(공정부지), 남구 송촌동 257평 매도, 나주도 성산리 배밭 4700평, 장흥읍 유치대지 2만 1000평, 진월동 APT 입구 상가부지 380평, 나주 남평 서산리(드림가우빌지), 나주주단 금곡 생죽지 458평, 그랜드belt 입아 14만 2000평 매도

한국공인중개사 (471) 822-7100. 장성지역,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점, 대지 약 3000평, 건물 1-철골조 2층 437평, 건물 2-철골조 248평, 매매가 12억(철축가능),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471) 522-9422. 동림2지구 임대, 병·의원, 학원, 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속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빛고을엔드공인중개사 (471) 0455-2200.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송촌동 1층 주거지역 금매, 남구 이장동 1층 주거용지 금매, 남구 이장동 임야 3,000평 금매, 남구 이장동 임야 2800평 금매, 남구 송촌동 임야 4,000평 매매, 남구 양촌동 1층 주거지역 금매, 남구 양과동 대지 금매, 남구 송촌동 임야 3,400평 매매

신도시중개사 (471) 061-833-6669. 심고층, 여수 연육교 앞 아름다운 심, 우주센터, 우주센터, 우주센터

국민공인중개사 (471) 011-635-7939. 건물, 땅, 분양부지 전문중개, 주택, 상업, 공업, 임대, 임대, 임대, 임대

한 일 지도 (주) (471) 529-1409.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이번엔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 광주시 전지역 그랜드belt 2차 해제 198곳 수록, 해제된곳 안에 전지역 계획상 수록, 남구 호천역 역세권 1, 2지구 비운다리 수록, 중구 용신동 택지개발 경계선 수록, 중구 월남동 그랜드belt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중구 내남동 그랜드belt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중구 선교동 그랜드belt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중구 선교동 벤치타운 부지 수록, 광주 무안구 고속도로 저서리 수록, 서광산 1·C 수록, 광주시내 전지역 APT 입구, 세대수, 평형 수록, 하남2지구내 APT 배지도 수록, 수완지구 전지역 APT 배지도 수록, 남구 지석동 빛고을 APT 배지도 수록, 광산구 신정동 골드프레임 APT 배지도 수록, 백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지도 수록, 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지도 수록, 중구 지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지도 수록, 광산구, 옥동, 월전동, 평동공단 추가 수록, 이의, 지적분할 및 신규 APT, 용도지역, 계획상 등 많이 있는데도 이미 다 표기된한 점 이해 바랍니다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광주-진남 전지역, 실사확인도 지적도 부분별 맞출제작 합니다. (빠다 속스기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한 일 지도 (주) <윤남주대표>, 052-6310, 011-9433-6310